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국가위원회 협력 포럼

2012. 4. 27 (금) 14:00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 (서울 명동)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국가위원회 협력 포럼

※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IHP: 국제수문학프로그램(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OC: 정부간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MAB: 인간과생물권프로그램(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IGCP: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

2012. 4. 27 (금) 14:00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 (서울 명동)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국가위원회 협력 포럼

::: 2012. 4. 27 (금) 14:00 ::: 장소: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 (서울 명동) :::

프 로 그 램

- 14:00 - 14:30 개회

- 14:30 - 15:30 **1부: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국내 활동과 국제 현황**
 - IHP 사업 소개 및 추진 현황
 - 안재현 IHP한국위원회 위원, 서경대학교 교수
 -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운영 현황
 - 김현영 KOC 위원,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위원
 -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 최종관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외협력실
 -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GCP)
 - 이용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15:30 - 15:50 휴식

- 15:50 - 17:00 **2부: 유네스코의 동향과 협력**
 - 유네스코의 재정위기와 189차 집행이사회 주요 결과
 -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 유네스코 카테고리II기관 활동과 협력
 - 이지향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국제협력 담당
 - IHP한국위원회 신탁기금 현황과 협력강화 방안
 - 김중훈 IHP한국위원회 부위원장, 고려대학교 교수
 - IOC 신탁기금 현황과 협력강화 방안
 - 김현영 KOC 위원,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위원
 - MAB 신탁기금 현황과 협력강화 방안
 - 김민선 MAB한국위원회 사무국,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외협력실

- 17:00 - 17:30 **종합토론**

- 18:00 - 만찬

❧ 목 차 ❧

프로그램	i
IHP 사업 소개 및 추진 현황 IHP한국위원회, 서경대학교 안재현	1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운영 현황 KOC, 한국해양연구원 김현영	8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MAB한국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종관	16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GCP) 서울대학교 이용일	26
유네스코의 재정위기와 189차 집행이사회 주요 결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우탁	36
유네스코 카테고리II기관 활동과 협력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이지향	43
유네스코 IHP국가위원회 신탁기금 현황과 협력강화 방안 IHP한국위원회, 고려대학교 김중훈	56
IOC 신탁기금 현황과 협력강화 방안 KOC, 한국해양연구원 김현영	61
MAB 신탁기금 현황과 협력강화 방안 MAB한국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김민선	74

IHP 사업 소개 및 추진 현황
IHP한국위원회, 서경대학교 안재현

IHP 사업 소개 및 추진 현황

2012년 4월 27일

안 재 현

IHP 한국위원회 위원, 서경대학교 교수

IHP 사업의 개요

IHP 사업의 개요

- IHD (International Hydrologic Decade) : UNESCO에서 1964-1973년까지 수행
- IHP (International Hydrologic Project) : 1974년 UNESCO에서 IHD으로 후속 추진
- 1975년부터 현재까지 총 7단계 사업 추진 중

1단계 사업	1975-1979년
2단계 사업	1980-1984년
3단계 사업	1985-1989년
4단계 사업	1990-1995년
5단계 사업	1996-2001년
6단계 사업	2002-2007년
7단계 사업	2008-2013년

2010-2011년 활동 : UNESCO-IHP 정부간이사회 참석

- 2010년 7월 프랑스, 파리
- 이순탁 교수(영남대) UNESCO-IHP 의장 선출
- 2009년 국내 IHP 연구성과 홍보



3 / 12

IHP 한국위원회

2010-2011년 활동 : 아시아 IHP 회의 및 APHW-IHP 회의 참석

- 2010년 11월 베트남, 하노이
- 8편의 IHP 연구성과 발표
- 청미천 대표시험유역 성과 기조강연으로 발표



4 / 12

IHP 한국위원회

2010-2011년 활동 : IHP 연구성과 국내 홍보

- 2011년 5월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6편 발표/홍보)



IHP 관련 훈령 제정

- 국토해양부 훈령 제정 (696호, 2011.4.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수문학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수문·수자원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설치하는 국제수문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제2조(기능) 국제수문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그 목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국제수문학프로그램(이하 "IHP" 라 한다) 관련 국내외 프로그램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2. 제1호와 관련된 국내 협의 및 조정, 제반 의제 검토, 정부대표단 추천, 관련 자료 및 정보 관리
3. IHP 관련 연구·교육훈련 및 인식향상사업 촉진
4. 정부의 수문·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수행

IHP 한국위원회 출범

-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 2011.5.12 출범

- 기능
 -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 IHP 관련 국내 협의 및 조정, 제반 의제 검토
 - IHP 관련 연구, 교육훈련 및 정부대표단 추천
 - 정부의 수문,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
- 구성 : 20인 이내(공동위원장* 2인, 부위원장 1인 포함)
 - * 당연직 8, 위촉직 12, ** 정부측 1, 민간측 1
- 임기 : 2년(연임가능)
- 회의 소집, 운영
 -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 임시총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IHP 한국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근무처	직위	분야	비고
위원장	(김형렬)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책	당연직
	이순탁	영남대	석좌교수	수공학	위촉직 IHP의장
부위원장	김중훈	고려대	교수	수자원	위촉직
위원	(강주엽)	국토부	하천운영과장	정책	당연직
	(김양수)	한강홍통	하천정보센터장	홍수예보	당연직
	(임현묵)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팀장	조직운영	당연직
	(고덕구)	수자원공사	연구원장	정책	당연직
	(이동률)	건기연	수자원 연구실장	수자원	당연직
	(심재현)	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장	재해	당연직
	(안재현)	수자원학회	IHP분과위원장	수자원	당연직
	김영오	서울대	교수	수문	위촉직
	김진홍	중앙대	교수	하천환경	위촉직
	박성제	미래수자원 연구원	원장	정책	위촉직
	윤병만	명지대	교수	수리실험	위촉직
	이상일	동국대	교수	지하수	위촉직
	이창해	대진대	교수	수리학	위촉직
	하성룡	충북대	교수	하천환경	위촉직
	박재영	수자원공사	조사기획처장	수문	위촉직
	김현준	건기연	연구위원	수문	위촉직
정성원	유량조사 사업단	단장	수문	위촉직	

IHP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재구축



9 / 12

IHP 한국위원회

IHP 7단계 연구 추진 활동

7단계 주제

- 7단계 사업(2008-2013년) 주제 : 물 의존 (압박과 사회적 대응에 대한 시스템 분석)



10 / 12

IHP 한국위원회

2010-2012년 연구 주제

연구 주제 및 과제명

주 제	과 제 명
기후변화 유역, 대수층	1) 한반도의 극치사상 및 특성 분석
거버넌스 사회경제학	2)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현황 평가 및 미래 수자원 관리 방안 3) 물안보 확보를 위한 전 지구적 전략과 사례 및 우리나라의 대응체계
생태수문학	4)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생태환경변화가 수문기상특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질, 건강	* 2008-2009년 연구 수행
기타	5) 수문 및 수질자료의 전자출판 보급 6) 청미천 시험유역 운영 7) 대동천 시험유역 운영

2012년 활동계획

1. IHP 연구과제 수행

- 기간 : 2012년 3월-12월
- 세부과제 : 청미천, 대동천 대표유역과제를 포함한 총 7개 과제

2. IHP 연구성과 국내외 홍보 2012년 학술발표회에 IHP 세션 운영

-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국제세션 운영/발표 (5월 17일)
- IHP 사업 홍보 영문팸플릿 제작(4-5월) 배포
- IHP 홈페이지 지속적 업데이트

3. IHP 정부간이사회 참석

- 프랑스/파리, 7월
- 내용 : 회의 참석/지원, IHP 연구성과 홍보

4. 2013년 연구주제 선정

- 7단계 6차년도(2013년) 연구사업 및 내용 선정
- 기간 : 2012년 10-12월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운영 현황
KOC, 한국해양연구원 김현영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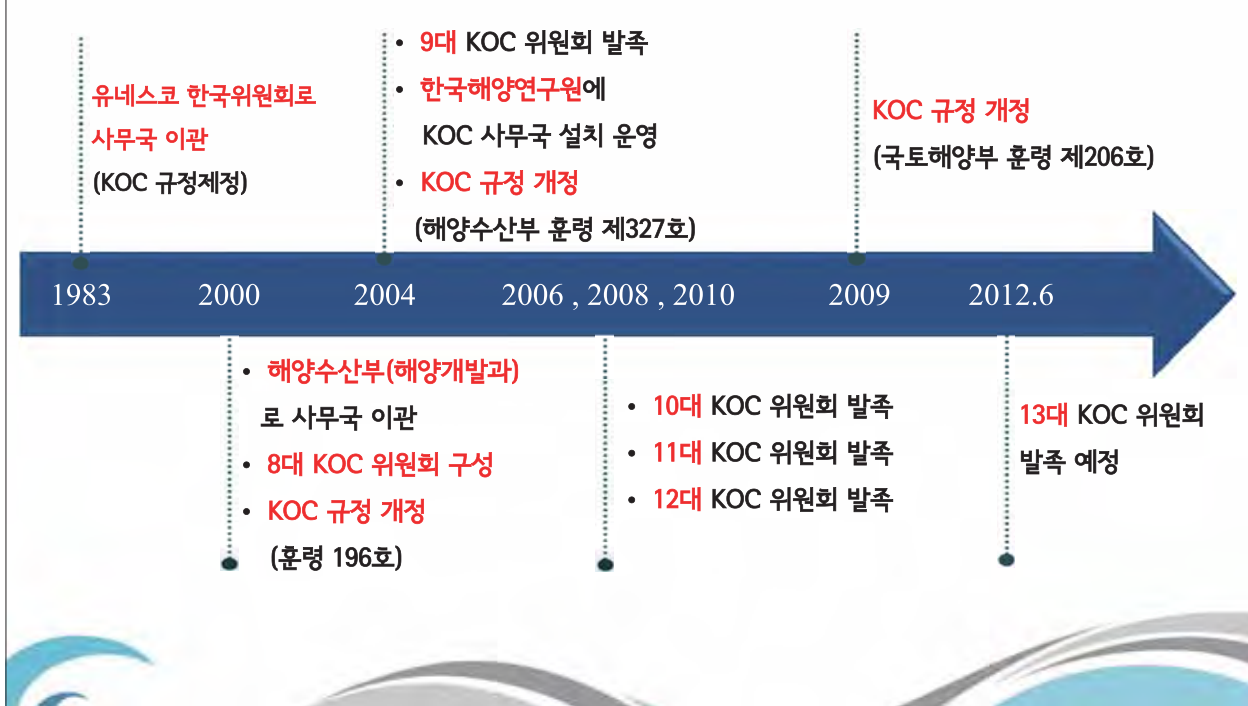
한국해양연구원



I. 운영현황

한국해양학위원회 운영현황

연혁



한국해양학위원회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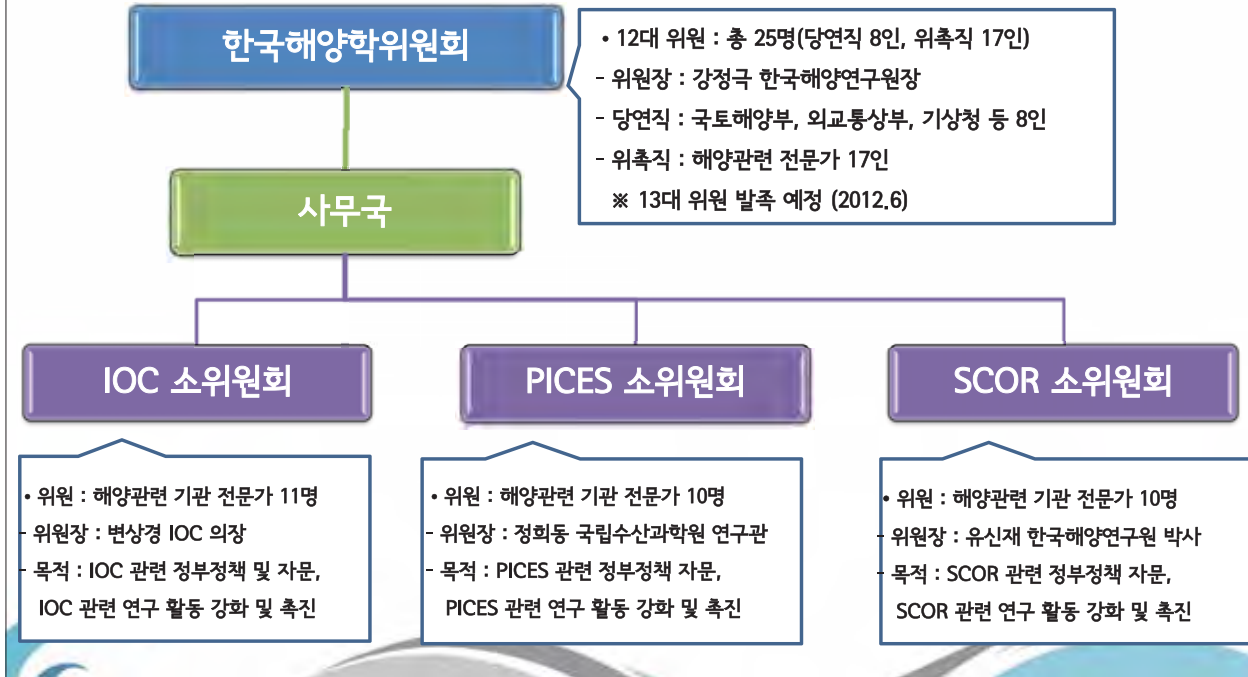
명칭 : 한국해양학위원회(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

설립목적 및 기능

- IOC 사업 및 국내 IOC 활동과 PICES 등 해양과학 관련 국제기구의 국내 활동 지원
- KOC 사무국 중심으로 국내 관련기관과 학계 연계
- 지구기후변화 등 해양 분야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및 전략 기초 수립
- 정부에 자문역할 수행 및 이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

한국해양학위원회 운영현황

조직도



1. MT 선진화를 위한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IOC 집행이사회 참가를 통한 국제동향 파악 및 의제분석

- IOC 제26차 총회 및 집행이사회 참가(2011.6) 결과보고서 발간
- IOC의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설립, UN Regular Proces, OBIS 등 IOC 의제를 분석하고, 국제동향 파악 및 제4차 JCOMM 총회, 제2차 PICES/IOC/ICES 기후변화 심포지엄 유치 등 다양한 IOC 관련 의제를 발굴

국제기구 주요 동향분석 자료 발간 및 제공

- 정책결정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정상회의 (Rio+20) 국제기구 공동보고서 "바다와 연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사진" 번역 및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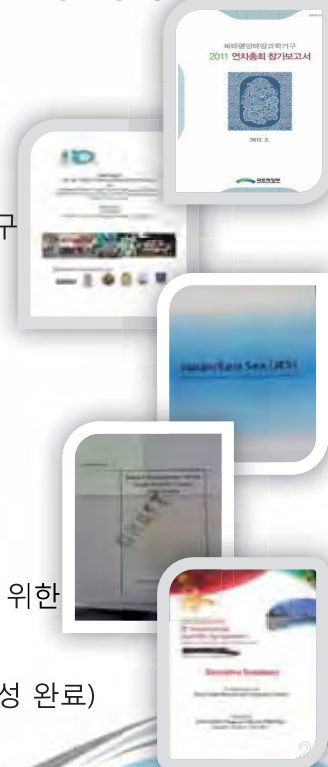
2.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를 통한 지역해 협력체제 구축 및 협력지역 확대

WESTPAC 협력강화 및 협력연구 연차결과 도출

- 제8차 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엄 결과보고서 발간
- WESTPAC 을 통해 "서태평양 해양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연구 사업" 관련 신규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3차년도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

PICES 의제분석 및 공동연구 주도적 참여

- PICES 중기회의(2011.4) 및 제20차 총회(2011.10)에 참가하여 국제동향 및 회의의제 분석, 보고서 발간
- PICES 보고서 제2판에서 제외된 동해/일본해 편 발간 주장을 위한 PICES 출판물 중 동해/일본해 병기 자료집 발간
- PICES 보고서 제2판에서 제외된 동해/일본해편 준비(원고 작성 완료)



3.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의제발굴 및 국제기구 내 아국의 영향력 확대

국제기구 임원 진출 및 지원을 통한 국제기구 내 한국의 영향력 강화

- IOC 제26차 총회 및 제44차 집행이사회에서 한국 의장국 진출(변상경 박사/2011.6)
- PICES 과학평의회 의장(유신재 박사) 활동 지원

국제기구와 연계한 해양관련 국제회의 개최

- IOC 미래와 한국의 역할포럼 개최(2011.3)
- IOC 내 동구권 국가 해양관측 네트워크 구축 포럼 개최(2011.3)





**The Future of IOC Toward Next 10 Years and
Its Implication for Member Stat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19 March 2012, Varna Bulgaria**



4. 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프로그램 발굴 및 사무국 운영을 통한 지식자원 거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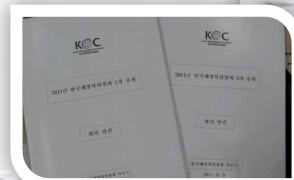
한국해양학위원회 사무국 및 12대 위원회 운영

KOC 산하 소위원회 운영

- KOC 산하 소위원회(IOC, PICES, SCOR) 운영(6회)를 통한 국제 기구 활동 지원 및 국내 관련 기관과 학계연계

DB 구축

- 국제동향 및 정보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정보공유
- 해양과학 정보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8건)
- 홈페이지 수요자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후 보고서 작성



5.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활용 모색

젊은 과학자 및 중견과학자의 국제회의 참가 지원

- PICES 총회 젊은 및 중견과학자의 발표지원 및 수상(11명/21편 발표)
 - 과학평의회 우수 포스터 발표(해양연 장찬주 박사)
 - 수산분과 우수 논문 발표(서울대 나한나)
 - 데이터 분과 우수 포스터 발표(서울대 장경일 교수)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활용 방안모색

- IOC 의장단 회의(2011.01) 참가 및 회의 주제를 통한 IOC 현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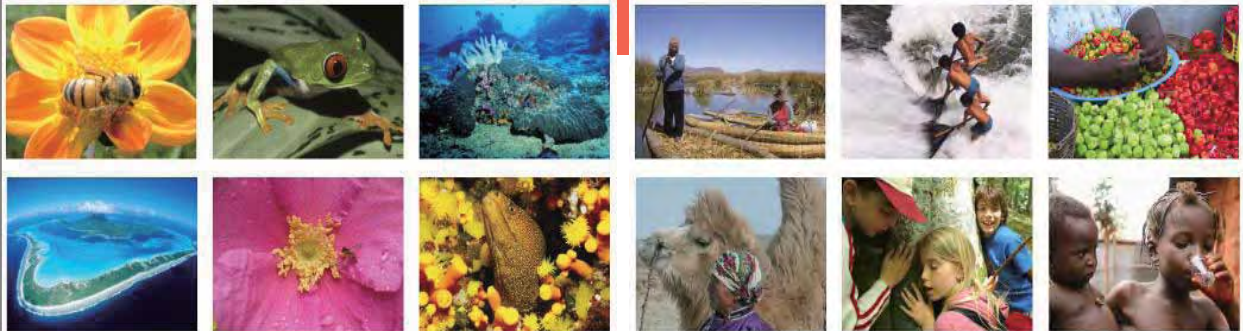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MAB한국국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종관**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외협력실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최종판**



MAB의 국내 및 국제 현황

순서



1. MAB 프로그램 현황
2. MAB 한국위원회
3. MAB 국제 협력

1. MAB 프로그램 현황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MAB 프로그램의 개념

-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의 정의**
 - 1970년 유네스코에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지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문학적 연구와 능력 배양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간 프로그램
- **MAB의 목적**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사회, 경제적 필요와 문화적 완전성을 타협하는,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임
- **MAB의 역할**
 - 생물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그리고 인간과 환경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바탕 제공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 및 특징

●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의 개념

- 인간과 생물권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에 의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 연안, 해양 생태계

●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징

- 대표적이거나 전형적인 생태계를 지니고,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 실험할 수 있는 지역
- 세계유산을 포함하여 지정 가능



5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생물권보전지역 보호체계

●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 3개 지역 구분 관리 : 핵심지역, 완충지대, 전이지역(국내법적 근거 없음)
-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1996)에 의거 관리

생물권보전지역



6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MAB 프로그램의 역사

- 1968 : 생물권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의 과학적 기초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 회의 권고안에 따라 인간과 생물권(MAB) 사업 준비
 - 국립공원과 생물학적 보호구 및 여타 보호지역을 연계하는 세계 네트워크 구상 등장
- 1970 : MAB 사업 계획(안) 승인(유네스코 총회)
- 1971 : 제1회 MAB 국제조정이사회 개최
- 1976 : 미국 big bend 국립공원 지역을 비롯한 세계 75개소 최초 지정
- 1982 :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1992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7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MAB 프로그램의 역사

- 1995 : 세비아 전략 수립
 -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획과 기능의 통합
 - 법적 보호를 받는 핵심지역과 인근의 다양한 경관지역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
- 2008 : 마드리드 행동 계획(Madrid Action Plan) 수립
 -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방향 설정
- 2009 :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2010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2010 : MAB 국제조정이사회 의장국 선출(제22차 MAB 국제조정이사회)
- 2011 : 114개국 580개소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관리 중
 - 북한 : 백두산(1989), 구월산(2004), 묘향산(2009)

8

2. MAB 한국위원회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MAB 한국위원회

- **MAB 한국위원회 일반 현황**
 - 관련근거 : 환경부 훈령(제887호, 2009. 12. 15. 재정)
 - 위원회 구성 : 25명(당연직 5명, 전문가 20명)
 - 위원회 임기 : 2010. 11. ~ 2012. 10.
- **MAB 한국위원회 역할**
 - MAB관련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및 관리 촉진
 - MAB관련 연구, 교육훈련 및 인식향상 사업의 추진
 - 정부의 환경 및 개발 정책 수립에 기여 등
- **MAB 한국위원회 사무국**
 -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설치 운영(2010. 1. 20.)
 - 사무국장 : 최종관
 - 간사 : 박지부, 김민선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MAB 한국위원회

● MAB 한국위원회 명단

- 위원장 : 백규석(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최청일(전 한양대학교)
- 부 위원장 : 신동원(국립공원관리공단), 조도순(가톨릭대학교)
- 정부부처(5) : 박광열(국토해양부), 최종덕(문화재청), 김현식(산림청), 백규석, 신동원
- 전문가(20) : 고철환(서울대학교), 김귀곤(서울대학교), 김창환(전북대학교), 박흥경(외교통상부), 백용해(녹색습지교육원), 최청일, 성현찬(단국대학교), 오충현(동국대학교), 이관규(강원대학교), 이우신(서울대학교), 이지훈(지역희망디자인센터),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정우탁(유네스코한위), 조도순, 제종길(도시와자연연구소),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재용(충남대학교), 홍선기(목포대학교), 황순진(건국대학교)

11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MAB 한국위원회 주요사업

● 제14대 MAB한국위원회 정기 회의

- 연 2회('12. 2월, '12. 8월) 개최
- 내용 : '12년 한국위원회 및 생물권보전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논의
신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정기 평가보고서 검토 등

● 유네스코 MAB 콜로кви엄

- 연 2 ~ 3회 개최
- 내용 :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는 연구의 결과 확산

● 생물권보전지역 교육서 번역 발간 예정

- 책자명 : A Creative Approach to Environmental Education
- 산악형 보호지역 관련 환경 교육 자료로 활용

12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MAB 안국위원회 주요사업

-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일 자 : 2012. 6월 중
 - 내용 : 지난 30년간의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논의
- 생물권보전지역 정기평가 보고서 지원
 - 대상 :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82 지정),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02 지정)
 - '12년 9월 제출, '13년 국제조정이사회에서 평가 및 권고
- 마드리드 행동계획 이행사항 점검
 - 기간 : '12 .8. ~ 9.
 - 내용 : 마드리드 행동계획 최종 점검을 대비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점검

13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MAB 안국위원회 국제 사업

-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참가
 - 일 자 : 2012. 2. 13. ~ 16.
 - 장 소 : 스페인 메노르카 생물권보전지역
 - 내 용 :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방안 논의
- 제24차 국제조정이사회 참가
 - 기 간 : 2012. 7. 9. ~ 13.
 - 내 용 : 신규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의장국 선출 등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
 - 기간 : '12 9. 6. ~ 15.
 - 내용 : 보전캠퍼스(ESD 관련), 워크숍, 홍보 부스 운영

14

3. MAB 국제 협력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MAB 국제조정이사회의

- 국제조정이사회의 구성('10~'12)
 - 의장국 : 대한민국(최청일 위원장)
 - 부의장국 :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베냉, 이집트
 - 보고자 : 러시아(네로노프 박사)
 - 이사국(34개국) :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라루스, 베냉,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북한, 이집트, 에스토니아, 이디오피아, 가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이란, 이스라엘,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레바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태국, 터키, 영국, 우크라이나, 탄자니아, 베트남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MAB 국제조정이사회의

● 국제조정이사회의 역할

- MAB 프로그램의 안내 및 감독
- MAB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진행사항 검토
- 지역적 또는 국제적 협력을 위한 조직 및 국가 연구 프로그램 제안
- 일반적인 MAB 프로그램간의 우선 순위 결정
- MAB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간의 협력관계 조정
- 타 국제적 과학 프로그램과 활동 조정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질문에 대한 국제 NGO와의 협의

17

MAB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

MAB 한국위원회 참여 국제 네트워크

●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 참여국가 :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 주요내용 : 동북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요 기능(보전, 발전, 지원)에 대한 정보 및 관리 경험 공유

●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 참여국가 : 대한민국, 스페인,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칠레, 포르투갈
- 주요내용 :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논의 및 시행

18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GCP)

서울대학교 **이용일**

UNESCO-IGCP (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



IGCP 한국위원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용일

The screenshot shows the UNESCO IGCP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menus for UNESCO, Education, Natural Sciences, Social and Human Sciences, Culture,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nd Media Services. Below these are sub-menus for 'About us', 'Science & Technology', 'Environment', 'IOC Oceans', 'Priority Areas', 'Special Themes', and 'Resources'. The main header features the UNESCO logo and the text 'EARTH SCIENCES FOR SOCIETY'. A breadcrumb trail reads: UNESCO » Natural Sciences » Environment » EARTH SCIENCES » 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 (IGCP)' and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program as a cooperative enterprise of UNESCO and IUGS, established in 1972. It mentions that the IGCP has supported approximately 400 international research teams. A sidebar on the left lists 'EARTH SCIENCES' categories: 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 Capacity Building, Earth Observation, and Geoparks. A 'RELATED INFORMATION' sidebar on the right includes 'ABOUT IGCP' (40th Anniversary - 22 Feb 2012), 'RELATED EVENTS' (20-21 Feb. 2012 - Scientific Board meeting), and 'MEETINGS' (IGC: 34th Congress (Brisbane, Aug 2012) and EGU General Assembly (Vienna, April 2012)).

Objectives of IGCP

- Improving our understanding of the geoscientific factors affecting the global environment in order to improve human living conditions
- Developing more effective methods to find and sustainably exploit natural resources of minerals, energy and groundwater
- Increasing understanding of geological processes and concepts of global importance, including an emphasis on socially relevant issues, and
- Improving standards, methods and techniques of carrying out geological research, including the transfer of geological and geotechnological knowledge between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countries.

Topics of IGCP

- **Earth Resources: Sustaining our Society**
- **Global Change and Evolution of Life:**
Evidence from the geological record
- **Geohazards: Mitigating the risks**
- **Geoscience of the Water Cycle**
- **The Deep Earth: How it controls our environment** (ranging from changes in the Earth's magnetic field to plate tectonics)

- Earth Resources: Sustaining our Society** : Knowledge on natural resources - including minerals, hydrocarbons, geothermal energy, and water - and their management is the frontline of the struggle for more sustainable and equitable development.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xploitation of these resources is a challenge for geoscience research. The progres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equally bound to this premise.
- Global Change: evidence from the geological record**: Changes in the Earth's climate and of life on Earth are preserved in the geologic record. Ice and dust records, terrestrial and ocean sediments, and sequences of fossil plant and animal assemblages all tell the story of our Planet which holds important lessons about present-day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the ways to mitigate and manage environmental damage.
- Geohazards: mitigating the risks**: Geohazards include earthquakes, volcanic activity, landslides, tsunamis, floods, meteorite impacts and the health hazards of geologic materials, and can range from local events such as a rock slide or coastal erosion to events that threaten humankind such as a supervolcano or meteorite impact. Earth scientists undertake research to better understand these hazards and contribute to risk management policies related to social and technical issues associated with geohazards as well as disaster mitigation.
- Hydrogeology: Geoscience of the water cycle**: Life on Earth depends on water, and its sustainable use is crucial for continued human activities. Earth's water cycle involves studying, understanding, and managing groundwater systems, hydrogeology, as well as sources, contamination and vulnerability of water systems.
- Geodynamic controls our environment**: Our habitable environment at the Earth's surface is linked and controlled by processes occurring deep within the Earth. Earth scientists use, inter alia, geophysical techniques to study deep Earth processes ranging from changes in the Earth's magnetic field to plate tectonics to understand better the Earth as a dynamic planet. Those processes are also relevant to natural resource exploration,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and the study and mitigation of natural hazards such as earthquakes.



IGCP Board Members

		JANUARY 2017									
EARTH RESOURCES <i>Sustaining our Society</i>	Chairperson: Ms Vajda, Vivi vivi.vajda@geol.lu.se Lund University (+46) 46-2224635 Sweden	Mr Floritz, Robert Team Leader robert.floritz@unige.ch University of Geneva (+41) 22 379 66 33 / 66 24 Switzerland	Ms Agarwal, Madira magarwal@drh.srii.gov.in University of Petroleum & Energy Studies (+91) 135 2102690 India	Mr Kalindskate, Leonard lekalindskate@yahoo.com Geological Survey of Malawi (+265) 995 263 485 Malawi	Mr Laitinen, Raimo Raimo.Laitinen@bch.fi Geological Survey of Finland (+35) 84 06 739 487 Finland	Mr Lips, Andor andor.lips@borealis.com Natural Resources - Metals & Mining (+31) 20 5634910 The Netherlands	Mr Niu, Fang-Jun nfj@foxmail.com Chinese Academy of Geological Sciences (+86) 10-68999033 China	Ms Ochr, Gani gani@nuist.edu.cn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976)-11-326425 Mongolia	Mr Pandit, Sundar A sundar_a@yahoo.co.in Atomic Minerals Directorate for Exploration and Research (+91) 80 6583444 India	Mr Selmann, Reimar R.Selmann@john.ac.uk Natural History Museum (+44) 207 942 5042 UK	
	GLOBAL CHANGE AND EVOLUTION OF LIFE <i>Evidence from the geological record</i>	Mr Vickers-Becch, Patrick Team Leader p.vickers@unimelb.edu.au Flinders University (+61)-3 9905-4889 Australia	Mr Harper, David dharper@dmu.dk University of Copenhagen (+45) 3522371 Denmark	Ms Mori, Rie-ji rieji@cc.uhime-u.ac.jp Ehime University (+81) 89 927 9630 Japan	Mr Koenigshof, Peter Peter.Koenigshof@senckenberg.de Senckenberg Forschungsinstitut und Naturmuseum (+49) (0)69 97075 1686 Germany	Mr Kupar, Anton aku@geus.dk Geological Survey of Denmark and Greenland (+45) 38142367 Denmark	Mr Lukeneder, Alexander alexander.lukeneder@nhm-wien.ac.at Natural History Museum Vienna (+43) (0)52177 251 Austria	Ms Mirza, Tita Tita.Mirza@tucl.ac.in Tatyasaheb Kore Institute of Technology (+91) 202 260 3017 India	Mr Mc Keevor, Patrick patrickm@qub.ac.uk Geological Survey of Northern Ireland (+353) 48 9038 8460 Northern Ireland	Mr Nabonne, Guy nabonne@geol.queensu.ca Queen's University (+1) 613 533 6168 Canada	
		GEOHAZARDS <i>Protecting People</i>	Mr Stewart, Iain Team Leader i.stewart@plymouth.ac.uk Plymouth University (+44) (0)1752 232437 UK	Mr Casati, Paolo casati@geo.unifi.it University of Firenze (+39) (0)552 011 496 Italy	Mr Gosar, Andrej andrei.gosar@geo.si Environmental Agency of the Republic of Slovenia (+386) (0)147 872 74 Slovenia	Ms Ocampo, Adriana aoc@nasa.com NASA (+1) 300 358 2152 USA	Mr Schroder, John jschroder@mail.unomaha.edu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1) 402 554 3770 USA	Mr Skalpa, Saulius skalpa@geo.lt Institute of Geology and Geography (+370) 5 204304 Lithuania	Mr Ulasay, Resat resat@hacettepe.edu.tr Hacettepe University (+90)-312-2977767 Turkey		
			GEOSCIENCE OF THE WATER CYCLE <i>Water & Society</i>	Mr Mads, Gøt Team Leader g.mads@geol.lu.se HydroGeochem Montpellier Laboratory (+33) 537 77 02 98 Morocco	Mr Bredehoeft, John jbredeho@baol.com The Hydrodynamics Group (+1) 415 332-0666 USA	Mr Georgiadi, Alexander a.georgiadi@gmail.com Institute of Geography RAS (+7) 495 9590022 Russia	Mr Lyons, William wlyons_162@osu.edu Ohio State University (+1) 614-688-3241 USA	Mr Pulido-Bosch, Antonio apulido@ual.es University of Almería (+34) 950 015465 Spain	Mr Saraf, Arun saraf@iitk.res.in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Roorkee (+91)-1332-285549 India	Ms Sincoussi, Maria ms_sincoussi@yahoo.fr University Mohamed V (+312) 537 77 19 67 Morocco	Ms Zhou, Weijian weijian@bores.fgg.ac.cn Institute of Earth Environment Chinese Academy of Sciences (+86) 39 88320778 China
				THE DEEP EARTH <i>From 10 km to the Core</i>	Mr Onda, Yoshinori Team Leader yonda@earth.yamanashi.ac.jp Yamanashi University (+81)-53-929-3212 USA	Mr Ainsaar, Leho Leho.Ainsaar@ut.ee University of Tartu (+372) 7376 494 Estonia	Mr Dong, Shuwen shwdong@caig.cas.cn Chinese Academy of Geological Sciences (+86) 10-68999606 China	Mr Gibson, George george.gibson@geoscience.gov.au Geoscience Australia (+61) 2 6249 9727 Australia	Mr Jin, Xiaochi jinxiaochi@caig.cas.cn Chinese Academy of Geological Sciences (+86)-10-68999702 China	Mr Maczuga, Václav vl.maczuga@yahoo.com University of Brno (+42) (0)21 312 5024 Romania	Mr Kaplain, Augusto kaplain@conicet.gov.ar Universidad de Buenos Aires (+54)-11-4788-1439 (ext.41) Argentina

IGCP Project 진행절차

- Project proposal submission
(by October 15th to IGCP Secretariat, France)
↓
- Proposal evaluation
(by IGCP Board in late February)
↓
- If accepted, runs for 5 years + OET
↓
- Annual activity report by Dec. 15
↓
- Evaluation of annual activity report
(by IGCP Board in late February)

IGCP Projects

● Theme: Earth Resources

- **Project 540** (Gold-bearing hydrothermal fluids of orogenic deposits: 2007-2011+OET 2012/Dr. Paolo Garofalso, Italy)
- **Project 525** (Geodetic monitoring of the global water cycle: 2008-2012/Dr. Hans-Peter Plag, USA)
- **Project 582** (Tropical rivers: Hydro-physical processes, impacts, hazards and management: 2009-2013/Dr. Edgardo Latrubesse, USA)
- **Project 597** (Amalgamation and breakup Pangaea: the type example of the supercontinental cycle: 2011-2015/Prof. Grendan Murphy, Canada)
- **Project 619*** (Contourites: processes & products: 2012-2016/Prof. Dorrik A.V. Stow, UK)

IGCP Projects

● Theme: Global Change and Evolution of Life

- **Project 572** (Permian-Triassic ecosystems: 2008-2012/Dr. Zhong Qiang Chen, Australia)
- **Project 575** (Pennsylvanian terrestrial habitats and biotas of southeastern Euramerica: 2010-2014/Dr. Christopher J. Cleal, UK)
- **Project 587** (Identity, facies and time – The Ediacaran (Vendian) puzzle: 2010-2014/Dr. Patricia Vickers-Rich, Australia)
- **Project 588** (Preparing for coastal change: 2010-2014/Dr. Adam D. Switzer, Singapore)
- **Project 591** (The Early to Middle Palaeozoic revolution: 2011-2015/ Prof. Bradley D. Cramer, USA)
- **Project 596**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patterns in the mid-Paleozoic: 2011-2015/ Prof. Peter Königshof, Germany)

IGCP Projects

● Theme: Geohazards

- **Project 567** (Earthquake archaeology – Archaeoseismology along the Alpine-Himalayan seismic zone: 2008-2012/Dr. Manuel Sintubin, Belgium)
- **Project 571** (Radon, health and natural hazards: 2009-2013/Dr. Gavin K. Gillmore, UK)
- **Project 585** (E-Marshall: Earth's continental MARGins: aSsessing the geoHazard from submarine Landslides: 2010-2014/Dr. Roger Urgeles, Spain)
- **Project 586Y** (Geodynamic processes in the Andes 32° – 34°S: 2011-2015/Dr. Laura Giambiagi, Argentina)

IGCP Projects

● Theme: Hydrogeology

- **Project 580** (Application of magnetic susceptibility on Paleozoic sedimentary rocks: 2000-2013/Dr. Anne-Christine da Silva, Belgium)
- **Project 581** (Evolution of Asian River Systems: 2009-2013/Prof. Hongbo Zheng, China)
- **Project 604** (Groundwater and wetlands in Ibero-America: 2011-2015/Dr. Emilia Bocangra, Argentina)
- **Project 618*** (Palaeoclimate information obtained from past-recharged groundwater: 2012-2016/Dr. Dioni I. Cenodón, Australia)

IGCP Projects

● Theme: Geodynamic

- **Project 559** (Crustal architecture and landscape evolution: 2008-2012/Dr. Bruce R. Goleby, Australia)
- **Project 574** (Bending and bent orogens, and continental ribbons: 2009-2013/Dr. Stephen T. Johnston, Canada)
- **Project 589*** (Development of the Asian Tethyan realm: 2012-2016/Prof. Xiaochi Jin, China)
- **Project 592*** (Continental construction in Central Asia: 2012-2016/Prof. Inna Safonova, Russia)

IGCP-SIDA Projects

- **Project 594** (Impact of mining on the environment in Africa: 2011-2014/ Prof. Bohdan Křibek, Czech Republic)
- **Project 598** (Environmental change and sustainability in karst systems: 2011-2014/ Dr. Zhang Cheng, China)
- **Project 599** (The changing early Earth: 2011-2014/ Prof. Ewa Slaby, Poland)
- **Project 600** (Metallogenesis of collisional orogens: 2011-2014/ Prof. Zenqian Hou, China)
- **Project 601** (Seismotectonics and seismic hazards in Africa: 2011-2014/ Prof. Mustapha Meghraoui, France)
- **Project 606** (Addressing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s of major and abandoned mines in Sub-Saharan Africa: 2011-2014/ Prof. Theo Davies, South Africa)
- **Project 616Y*** (Tectonic, paleoclimatic, landscape evolution of Central Africa: 2012-2015/ Dr. Boniface Kankeu, France)

IGCP-NAIROBI

IGCP Projects – 331 projects as of April, 2012

- France/USA – 30
- Canada - 24
- UK – 20
- China – 19
- Australia/Argentina – 18
- Russia (USSR) – 15
- Czech Republic -14
- Japan -11
- Germany - 10
- Italy/Slovakia/Sweden – 8
- Brazil - 6
- Switzerland/Belgium/Austria/Hungary – 5
- Spain/Yugoslavia -4
- Netherlands/Botswana/Finland/Chile/Zaire/Thailand/Cuba -3
- India/Norway/New Zealand/Vietnam/Côte d’Ivoire – 2
- Korea and 24 nations – 1

Total 58 nations



IGCP Projects History

Page 23

- 506 **MARINE AND NON-MARINE JURASSIC**
Jingeng Sha (China), Nicol Morton (France), W. A.P. Wimbledon (United Kingdom), Paul E. Olsen (United States), Alberto G. Riccardi (Argentina), Grzegorz (Gregory) Pieńkowski (Poland), Yongdong Wang (China)
2005-2006 (2009)
- 507 **PALEOCLIMATS OF THE CRETACEOUS IN ASIA**
Yong Il Lee (Korea), Xiaoqiao Wan (China), Takashi Sakai (Japan), Krishnan Ayyasami (India)
2006-2010 OET
- 526 **RISKS RESOURCES AND RECORDS OF THE PAST ON THE CONTINENTAL SHELF**
Francesco Latino Chiocci (Italy), Lindsay Collins (Australia), Michel Michaelovitch de Mahiques (Brazil), Renée Hetherington (Canada)
2007-2011
- 540 **GOLD-BEARING HYDROTHERMAL FLUIDS OF OROGENIC DEPOSITS**
Paolo Garofalo (Italy), J.R. Ridley (USA), Vsevolod Prokofev (Russia)
2007-2011
- 476 **MONSOON EVOLUTION AND TECTONIC-CLIMATE LINKAGE IN ASIA**
R. Tada (Japan), Hongbo Zheng (China), Boo-Kenn Khim (Korea), P. Clift (United Kingdom), S. A. Gorbarenko (Russia), B.N. Nath (India)
2003-2007
- 557 **DIAMONDS, XENOLITHS AND KIMBERLITES**
Holger Sommer (Botswana), Klaus Regenauer-Lieb (Australia), Haemyeong Jung (South Korea)
2007 OET in 2011



IGCP National Committee Contacts

MAY 2011

The National Committees are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represent IGCP in a particular country. The major aim of an IGCP National Committee is the organiz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IGCP-related outreach in the country and to sustain linkages of the national geological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with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and notably the IGCP.

- **Japan**
Prof. Dr Shigeki Hada
Chairman
IGCP National Committee
Prof. Kobe Women's University
Higashi Suma Aoyama 2-1
Suma-Ku
Kobe 654-8535
Japan
Tel: +81 78 737 2097 / Fax: +84 78 732 5161
hada@suma.kobe-wu.ac.jp

- **Korea (Rep.of)**
Prof. Dr Yong Alm Park
Chairman
Korean National Committee for IGCP
Department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Republic of Korea
yap@snu.ac.kr

UNESCO-IUGS-IGCP
1 ru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France
Tel: +33 (0)1 45 68 41 17 or 18
Fax: +33 (0)1 45 68 58 22
www.unesco.org/science/

IGCP 한국위원회 과제

- IGCP 한국위원회 운영
- IGCP Projects에 국내 과학자의 적극적 참여
- IGCP Projects의 국내 과학자 Leader/Co-Leader 역할 증대
- IGCP Board Member 진출

유네스코의 재정위기와 189차 집행이사회 주요 결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우탁

유네스코 재정위기와 189차 집행이사회 주요 결과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I.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과 유네스코의 재정위기

2011년 10월 31일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인 유네스코에 가입하였다.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은 미국의 유네스코 분담금(22%) 자동 동결(cut off)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를 초래했다. 미국의 분담금 동결로 유네스코는 2012년 예산을 30% 삭감하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해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은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팔레스타인은 오랜 숙원인 독립국가 건설을 유엔 가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으나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밝힘에 따라 유엔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차선책으로 유네스코 가입으로 정책 목표를 바꾸어 지난해 10월 31일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찬성 107개국, 반대 14개국, 기권 52개국으로 195번째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예기치 못한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은 예기치 못한 미국의 분담금 자동 동결로 이어졌다. 미국 의회는 1990년대 초반에 어느 유엔 기구든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경우 자동적으로 그 유엔 기구에 대해 미국 분담금을 납부 중지하는 연방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유네스코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분담금 미지불은 유네스코 예산의 3분의 1을 삭감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였다. 유네스코는 예산 부족으로 금년 초 대부분의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장기화될 경우 직원도 감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최근의 흐름은 1980년대 유네스코가 소위 '정치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하던 시기가 연상되면서 다시금 걱정과 우려를 자아낸다. 당시 제3세계 국가들 중심의 다수 세력은 정보의 자유롭고 '균형된' 흐름을 주장하는 소위 '신국제정보질서'를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탈퇴'를 가져왔고, 유네스코는 위축되고 약화되었다. 이후 약 20년간에 걸쳐 유네스코는 가급적 정치적 이슈를 피하면서 미국의 재가입에 공을 들여, 결국 2003년 미국의 재가입을 성사시켰으며,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잘 넘기고, 최근까지 무난하게 존속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2011년 말과 2012년 초의 일련의 흐름은 잊을 만하면 다시 찾아오는 ‘정치의 계절’처럼 유네스코를 다시 정치적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II. 2012년 3월 - 제18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지난 3월 초에 개최된 제18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이와 같은 유네스코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느 때보다도 한 달 일찍 개최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이번 집행이사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재정 위기 해결 방안을 심도 있는 논의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래서 의제도 재정 위기 논의 안건 중심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재정 위기에 대한 희망적이고 거시적인 타개 방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micro-management 수준의 세부 예산 절감 방안만 논의되어 실망스러웠다.

오히려 이러한 심각한 재정 위기상황에서도 각 회원국의 국가이익에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 마치 중요한 안건인 것처럼 다루어져 과연 유네스코가 위기를 위기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우려마저 자아내었다.

한 예로 유네스코 오비앙상 제정 문제가 그것이다. 오비앙상은 1979년부터 적도기니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중인 테오도르 오비앙이 자신의 이름을 붙인 생명과학연구상을 유네스코 상으로 제정하려는데 대해 서구 인권단체에서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독재자의 부패한 돈으로 유네스코가 상을 제정하는 것을 절대 반대해 온 것이 사안의 핵심이다. 4년을 끌어 오다가 이번에 상 이름을 오비앙상에서 적도기니상으로 바꾸어 다시 제안했는데, 상 이름을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유네스코 법률자문관의 검토 의견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첫째, 이 안건을 토론 없이 바로 호명(roll call)투표할 것, 둘째, 아프리카 공동 제안을 유럽 공동 제안보다 먼저 투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동안 관례를 보면 이런 민감한 정치적 이슈들은 늘 누군가 막후에서 절충안을 도출해 파국을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왜 토론을 두려워하는가?”라는 반대 발언도 있었지만 ‘투표가 민주주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이은 발언에 의사규칙에 따라 투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토론을 종결하자는 첫 번째 투표는 찬성 33개국, 반대 21개국으로 통과되어 오비앙상 안건은 토론 없이 막 바로 투표로 가게 되었다. 투표 순서와 관련하여 먼저 제안된 유럽 결의안보다 나중에 제안된 아프리카 결의안을 먼저 투표하자는 두 번째 투표도 찬성 34개국, 반대 21개국으로 통과되어 아프리카 결의안을 먼저 투표하게 되었다. 이미 두 차례의 절차 투표에서 아프리카 지지 세력이 33~34개 국가로 드러났고, 결국

본 게임인 아프리카 결의안 투표 또한 찬성 33개국, 반대 18개국으로 이변 없이 마무리되었다. 오비양상 처리 과정은 유네스코가 심각한 ‘재정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국가적, 지역적 이해에 의해 분열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어서 이날 시리아 규탄 결의안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안건이 상정되었다. 시리아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결의안에 대해 활발한 발언과 토의가 진행되었는데, 오비양상과는 달리 서구와 일본, 대부분의 아랍국가들이 한목소리로 시리아의 최근 인권유린 사태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특히 예상외로 이웃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가 강력하게 시리아를 규탄하였다. 러시아, 쿠바 등이 시리아를 지지하였으나 역부족이었으며, 결국 투표에서 35개국이 찬성하여 시리아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루에 두 가지 정치적 결의안이 상정되어 총 4번의 투표를 진행되었는데, 유네스코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며, 회원국들이 ‘유네스코의 재정 위기 타개’라는 염불보다 ‘국가 이익’이라는 잣밥에 관심이 있는 모습이다. 회원국들이 일치단결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회원국들이 잣밥에만 관심이 있으니 오랜 만에 강력한 폭풍우를 만난 유네스코가 어떻게 이 perfect storm을 헤쳐 나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III. 유네스코의 본질과 변질 - 지식인 모임에서 정부간기구로

원래 유네스코의 뿌리는 1920년대 유럽의 지성인들이 만든 국제지적협력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세계 문제에 대해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앙리 베르그송,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올두스 헉슬리, 토마스 만, 폴 발레리 등이 참여하는 국제지적기구가 탄생했던 것이다. 이 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네스코 창설의 모태가 되었으며, 이 때문에 비록 UN 전문기구의 하나인 정부간 기구로 유네스코가 탄생하였지만, 세계적 지성인들과 민간 NGO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널리 열려있었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집행이사회 위원들은 각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사무국 고위직도 저명한 학자들이 많았다. 또한 유네스코는 NGO와 체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NGO의 유네스코 참여를 보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만의 독특한 조직인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도 각국별로 정부 대표, 학자, NGO 대표로 구성토록 권고되었다. 이와 같이 초창기 유네스코는 세계적 지식인들의 모임이었으며, 지적 연대를 추구하는 국제기구였다.

이러한 독특한 성격의 유네스코가 1970~80년대 ‘신국제정보질서’ 수립 움직임과 이에 맞선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아시아의 제3세계 신생국들이 주장하던 유엔에서의 ‘신국제경제질서’ 선언과 유네스코에서의 ‘신국제정보질서’ 수립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유엔과 유네스코를 격렬한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특히 ‘1국 1표’ 제도를 가진 유네스코에서 수적 소수에 몰려있던 미국은 유네스코를 탈퇴하고 만다. 미국의 탈퇴로 유네스코는 재정 위기에 봉착하고, 결국 기구의 생존을 위해 유네스코는 논쟁의 소지가 많은 세계 문제에 대한 지적 성찰 기능을 줄이고 ‘비정치적 국제기능기구’로 스스로를 한정하게 된다. 특히 1991년 일본이 제안한 집행이사회 위원의 정부대표화는 유네스코를 다른 유엔기구와 유사한 외교관들 중심의 국제행정기구로 만들었다.

세계의 지성인, 지식인들은 대체로 세계적 문제에 대해 세계적 시각에서 고민하고, 발언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가 대표들은 당연히 국익을 우선시 하고, 국익을 고집하며, 국익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향을 띄게 된다. 따라서 이후 유네스코는 차츰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국의 국익을 따지는 각축장이 되었고, 세계의 지성인들이 모이기보다는 각국 외교관들이 거쳐 가는 정거장이 되었으며, 세계 지적 협력기구라는 명성은 쇠퇴하고, 아쉽게도 일개 유엔 기능기구로 변질되었다.

IV. 시험대에 오른 유네스코의 지적 리더쉽 그리고 정치 외교 역량

과연 유네스코는 국제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번 재정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유엔 전문기구로서 유네스코도 정치적 이슈를 피해갈 수 없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은 대의명분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네스코는 다른 유엔 기구와는 다르구나 하는 강렬한 인상을 준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얼마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시각에서 보편적이고 객관, 타당하게 잘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유네스코의 내적 역량의 문제가 중요하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지적 리더쉽의 중심에 있으며, 정치적 역할과 외교적 역할을 능숙히 발휘해야 하는 핵심인사이다. 사무차장이나 여러 사무총장보들도 역시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리에 있는 상주대표부 대사들은 총회, 집행이사회 등 각종 유네스코 정책결정기구에서 의장, 부의장 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역시 지적 리더쉽과 정치 외교 역량이 요구된다. 또한 유네스코만의 독특한 제도인 국가위원회 사무총장들도 지적 리더쉽과 정치 외교 역할 수행에 예외일수 없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유네스코의 지적 리더쉽과 정치 외교 역량이 부족하다

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이번에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 오비양상 처리 과정 등을 보면 유네스코가 정치적 이슈를 감당할 정치 외교력이 약하다는 느낌을 부인할 수 없다.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후 전개된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유네스코의 역량이 역시 1980년대처럼 이번에도 부족해 보인다. 대의명분으로 유네스코를 하나로 묶어 내는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철학과 설득력, 리더쉽이 보이지 않고, 사무국의 위기대처 능력도 떨어지며, 유네스코 전체로도 치밀한 미래 비전이나, 위기 돌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오비양상 처리 과정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창의적인 막후 절충안을 도출해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유네스코 내에 해결사는 없고 방관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투표에 의지하는 국제기구는 오래갈 수 없다. 만약 투표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30개국만 장악하면 어떤 결정이든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1국 1표’ 제도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투표가 ‘대립’과 ‘분열’로 간주되고, ‘협상’과 ‘합의’가 유네스코를 하나로 묶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왔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투표보다는 ‘합의’, 그리고 합의를 위한 막후 협상과 절충이 관례로 자리 잡아 왔는데 최근에 이것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만약 유네스코가 앞으로도 계속 투표에 의존한다면 유네스코는 지난 1980년대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시기처럼 정치적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이 투표로 결정되었을 때, 이미 1국1표 체도를 가진 유네스코에서 주요한 정치적 이슈의 경우 투표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투표화’ 경향이 학습효과 차원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다. 투표는 민주주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거칠게 남용되면 공동체가 분열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배제된 소수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며, 승자 독식의 폐해 또한 심각하다. 그래서 수적 다수에 의한 수적 소수의 포용과 절충, 타협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얘기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격랑 속에서 유네스코가 중심을 잡는 것은, 다시금 유네스코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이라는 대의로 지적 성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며, 정치력과 외교력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고위직, 그리고 회원국 상주대표부 대사들과 국가위원회 사무총장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협력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세계적 지식인들과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으는 유네스코 대토론회와 지식인 포럼이 필요하며, 유네스코의 정치력과 외교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VI. 제언 - 향후 협력방안

최근 한국은 유네스코 가입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유네스코 주도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최청일 MAB 국제조정이사회 의장, 변상경 IOC

의장, 이순탁 IHP 정부간이사회 의장 등 자연과학 분야 3개 정부간 이사회 의장을 한국이 맡는 유례없는 경사는 한국의 국제 과학·환경 외교 역량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만약 한국이 작금의 유네스코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타개책을 제시한다면 아마도 한국은 명실상부한 주도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번 여수 EXPO를 통해 한국이 IOC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해양과학 사업을 추진하고, MAB 사업으로 아프리카에서 한국 신탁기금 사업을 추진하며, 2015년 세계 물 포럼을 한국에 유치 한 것 등은 어려움에 처한 유네스코를 한국이 진정으로 돕는 바람직한 사례들이다.

향후 협력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정부간위원회의 한국 전문가 그룹이 이번처럼 함께 모여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처 방안을 협의한다면 유네스코와 개별적으로 협력하는 것보다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따라서 매년 정기적인 모임 개최를 제안하고 싶다.

둘째, 당장 5월부터 향후 8년간의 유네스코 중기 전략과 향후 4년간의 유네스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지 작성이 시작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정부간위원회의 한국 전문가 그룹에서 설문지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 향후 유네스코 자연과학 사업의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시해줄 것을 희망한다.

셋째, 오는 10월 제190차 집행이사회와 그 이후 개최되는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유네스코 자연 과학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제안 및 결의안(DR) 제출을 기대한다.

유네스코 카테고리II기관 활동과 협력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이지향**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 활동과 협력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이지향 (국제협력 담당)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목 차

- 1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
- 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의 특징

-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기관의 고유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역량 강화,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이론적·실험적 연구, 고등연수 등을 통해 유네스코 프로그램의 실행 및 개발도상국들 간의 협력에 기여
- 목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적 기능적 자율성을 지닌 독립 기관



카테고리 I & II 기구 비교

Category I

- 유네스코의 직속기구
- 유네스코의 법적 재정적 책임하에 있음
- 유네스코 총회에서 예산 및 프로그램 결정
- 11개 중 8개가 교육기구임



Category II

- 유네스코의 산하기구
- UNESCO 감독하에 회원국이 법적 및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관
- 의사결정기구에 유네스코 사무총장 대표 참여
- 총회 결의안 채택의 공식 절차 및 유네스코와 정부간 협정에 의해 설립
- 전세계 82개 존재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의 설립

- 유치 희망국 조치 요청서(Request of Action) 제출
- 유네스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수행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및 제안된 협정(안) 심의
- 총회 결의
- 협정 서명



분야별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

분야	기관수
MP I: Education	8
MP II: Natural Science	39
MP III: Social and Human Sciences	5
MP IV: Culture	24
MP V: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4
Gender Equality Division/ODG	1
Bureau of Strategic Planning	1



통합전략

-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33차 총회 승인, 2007)
-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에 관한 통합전략」
(제35차 총회 승인, 2009)
 - 활동 범위: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적 혹은 지역간
 - 가능한 균등한 지역별 대표성 및 분포를 지니고 특히 개발도상 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함



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1999년 제30차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네스코와 대한민국정부간의 협정에 의해 2000년 8월 25일 한국에 설립된 세계 유일의 **국제이해교육 전문교육기관**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기관 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

* 2005, 2010 유네스코 국제평가 시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음



UNESCO Member States in Asia and the Pacific

아태지역 47개 유네스코 회원국 대상

- 1 교육가 EIU 역량강화
- 2 정책 연구 및 교육 자료 개발
- 3 정보 구축 및 확산
- 4 EIU 네트워크 강화

조 직



■ 이사회 : 주요 사안(중장기 계획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운영규정 등)을 의결

구분(인원)	이름(소속)
대한민국정부 대표(3)	서유미(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관) 김상일(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박순태(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유네스코 본부 대표(1)	김광조(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장)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2)	INOUE Masayuki(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이사장) Arief Rachman(유네스코인도네시아위원회 사무총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표(1)	전택수(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국제이해교육 전문가(3)	한준상(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은정(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TOH Swee-Hin(유엔평화대학 교수)
아태교육원장(1)	이승환(아태교육원장)

▣ **원장** : 공개모집 후 유네스코 본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

▣ **직원** : 20 명
 ※ 외국인 직원(인도네시아, 태국) 2명 포함

▣ **시설**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소재, 구로구청 소유 건물 924.64㎡임차 사용 중



주요 사업분야



1. 교육가의 국제이해교육 역량 강화

아태지역 교원연수

아태지역 교육전문가 연수

아태지역 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학교현장의 변화를 위한 학교장 연수

소지역 연수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와의 협력사업

UNDP-APCEIU 남남협력

EIU를 통한 MDGs 실천 강화

국가별 역량강화 연수

한-유네스코 펠로우십 프로그램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교육가 2개월 레지던스 프로그램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모든 이를 위한 교육 (EFA) 실천 강화



- 제12차 아태지역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 5월 / 한국
- 유네스코 아태지역 회원국의 교사교육 핵심 인력 30명



- 제3차 아태지역 교장 국제이해교육 리더십 아카데미

- 7월 / 한국
- 유네스코 아태지역 회원국 초·중·고등학교 교장 35명



- 소지역 국제이해교육 연수

- 9월 / 중국
- 동북아시아 교사훈련가, 교사, 교육전문가 30명





- 국가별 역량 강화 연수
 - 회원국 맞춤형 연수
 - 요청 국가/기관 예산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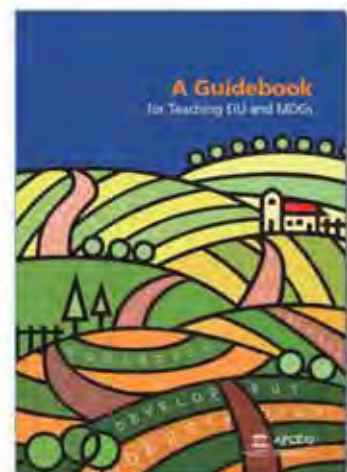
- 한-유네스코 펠로우십 프로그램

- 5~7월 (2개월) / 한국
-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교육가 30명
- UNESCO 본부, KOICA 후원



- UNDP-APCEIU 남남협력 프로그램

- 8월 / 피지
- 태평양지역 교사훈련가, 교육가, 교사 훈련 교육과정 개발자 40명
- 교사교육 자료 발간(영어)



2. 국제이해교육 연구 및 정책개발



국제이해교육 정책회의

2012년 주제: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기업의 역할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아태교육원 프로그램 기참가자, 관계자 및 기관으로부터 평가 및 후속활동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기적 영향력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도구 개발

국제이해교육 정책개발

다언어 교육 콘텐츠 개발

한-아세안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

아시아 전래동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제작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SEAMEO) 공동개발)

국제이해교육 자료 개발

세계유산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자료 개발
아시아의 문자를 활용한 교육자료 개발
국제이해교육 스토리 공모전

3. 국제이해교육 정보 구축 및 확산

<SangSaeng(상생)> 발간 (5월, 8월, 12월)

국제이해교육 영문 정기간행물
연 3회 발간

국제이해교육 모범사례

아태지역 내 모범실천 사례 5곳 선정 및 현장 모니터링
모범사례집 5종 발간 (영문)



아시아 문화 포토 아카이브

아태지역 현지 촬영 사진 데이터 베이스 구축
<http://photo.unescoapceiu.org/>





상생(영문잡지)

국제이해교육 모범사례



교육자료

4. EIU 네트워크 강화

- ▷ 국제이해교육 확산을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
- ▷ 유네스코 회원국 및 교육 기구간 네트워크 구축
- ▷ 2011-2013 유네스코 교육 카테고리 II Focal Point



IHP한국위원회 신탁기금 현황과 협력강화 방안
IHP한국위원회, 고려대학교 **김중훈**



UNESCO – IHP (국제수자원프로그램) 한국국가위원회(KNC) 신탁기금 현황과 협력강화 방안

김 중 훈

(부위원장 · 고려대 교수)

Korean National Committee
For
IHP, UNESCO

◆ UNESCO-IHP의 의장국과 이사국



- 제19차 정부간위원회(2010.7.5~9)에서 영남대 이순탁 석좌교수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음.
- IHP정부간이사회(IGC)의 이사국으로 선출된 (2001~2005) 이후 다시 2009~2013년 기간 동안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됨.

◆ IHP 조직 및 운영체계

● 정부간 이사회(Intergovernmental Council) :

- IHP 회원국 중 선출된 36개 이사국(임기4년)으로 구성된 IHP 최고의결기구, 향후 각 「지역정부간이사회(Regional Intergovernmental Council)」의 창설에 의한 2원적 지배구조로의 변경이 심도있게 논의중임.

- 매 2년마다 회의 개최되며 한국 은 2001-2005 2009-2013 기간 동안 이사국

●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 각 IHP 회원국 정부에서 설립

● 사무국 및 지역사무소 : IHP사무국(Secretariat)은 유네스코 수자원부(Division of Water Sciences)에서 담당하며, 세계 각 지역별로 산재한 유네스코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의 수문전문가에 의해서 지역 IHP활동담당.

아태지역 : 자카르타(인도네시아), 북경(중국)

◆ IHP관련 국제활동

● IHP정부간이사회(IGC)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의안위원회(RC)위원장 등 중요업적을 이룩함.

● 아태지역 13개국으로 구성된 IHP 운영위원회(RSC) 창설 주도국가로서 운영위원회(IHP-RSC)의장 등 중요업적을 이루었으며, 다음과 같은 IHP 관련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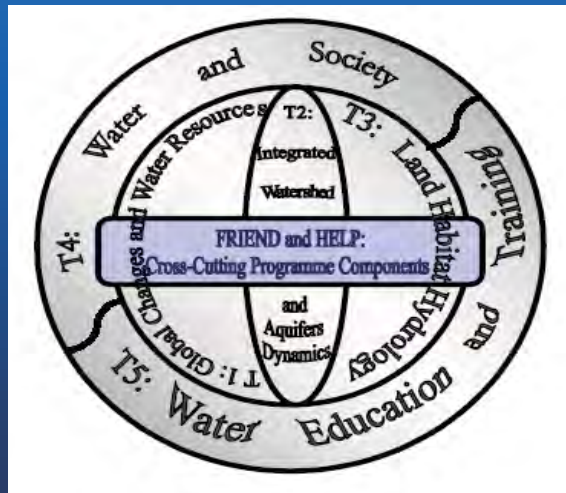
- IHP-RSC 아태지역 국가회의 및 국제 심포지움 (1998, 한국 대구)
- AP FRIEND Working Group회의 및 국제심포지움 (2002, 한국 대구)
- IHP-RSC 아태지역 국가회의 및 국제 심포지움 (2013년 한국 예정)

● 아태지역 FRIEND(AP FRIEND)연구발표 및 워크숍 활동 등을 통한 FRIEND 연구사업의 활성화와 또한 HELP연구사업의 국제적 활동에의 적극참여로 HELP연구사업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 IHP관련 각종 국제훈련과정, IHP관련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에 적극 참여하여 IHP관련 교육 및 연구의 보급활동에 기여하고 있음

◆ IHP Cross-Cutting Program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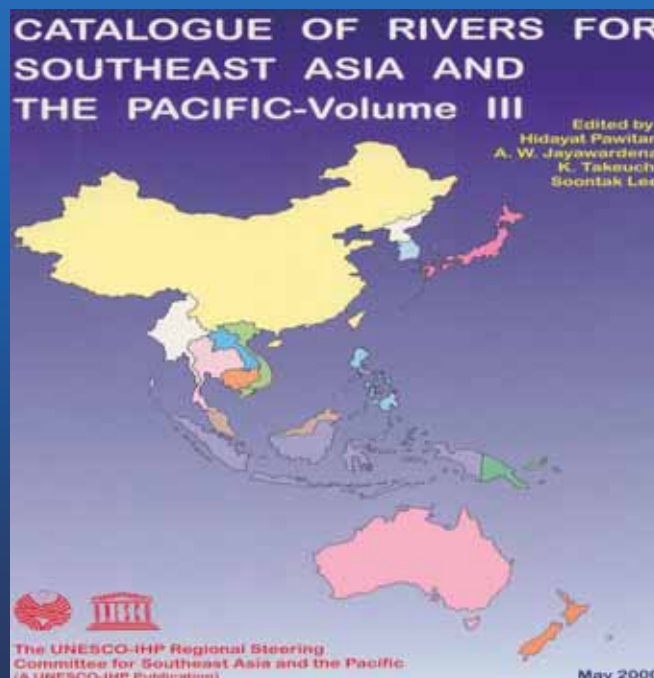
- 각 주제와의 횡적관련 프로그램(Cross-Cutting Programmes)으로 FRIEND(Flow Regimes from International Experimental and Network Data) 및 HELP(Hydrology for the Environment, Life and Policy)의 두 중점사업 프로그램이 수행중이며 그 상호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음.



Relationships between Themes and the cross-cutting programme components FRIEND and HELP

◆ APF(ASIAN PACIFIC FRIEND)

The Thirteen Countries Of AP FRIEND



◆ Category II Center 신청현황

● **International Center on Water Security & Sustainable Management (i-WSSM)** 국제 물 안보 및 지속가능관리 연구교육 센터

● 연구 분야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
- 상하수도 분야의 운영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 물안보 및 수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기술 개발
- 생태수문·수질 및 녹색성장 관련 기술 개발

● 교육 분야

- 댐과 하천시스템 및 통합물관리 기술
- 상하수도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관리 기술
- 물을 이용한 녹색에너지 생산 및 인프라 운영 관리 기술
- 개도국의 물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 및 정책 분야

- 금년 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신청서 제출. 금년 6월초에 있을 제20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안건 상정된 후 금년 중으로 유치 결정될 예정.

감사합니다!

IOC 신탁기금 현황과 협력강화 방안
KOC, 한국해양연구원 **김현영**



IOC 신탁기금 현황과 협력 강화방안

2012. 4

한국해양연구원 김현영

Dynamic **KORDI**

.. 1 ..

목차

I 해양과학 국제협력의 중요성 및 현황

II 한국의 신탁기금지원 현황

III IOC와의 협력강화 방안

Dynamic **KORDI**

.. 2 ..



I. 해양과학 국제협력의 중요성 및 현황

Dynamic **KORDI**

해양과학의 중요성

생명의 근원지

전 지구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생물종의 80%가 서식하는 무한한 수자원의 저장고. 전세계인구 2/3가 연안에 거주

광물 및 수산 자원의 보고

석유, 천연가스, 망간단괴, 메탄수화물 등이 다량 부존되어 있고, 전 세계인의 단백질 공급원. 고갈되는 육상자원의 대안

지구 기후변화의 최대 조절기능

기후조절능력, 오염물질, 자정능력, 해양생태계의 재생산 능력 등 22조 달러/년 가치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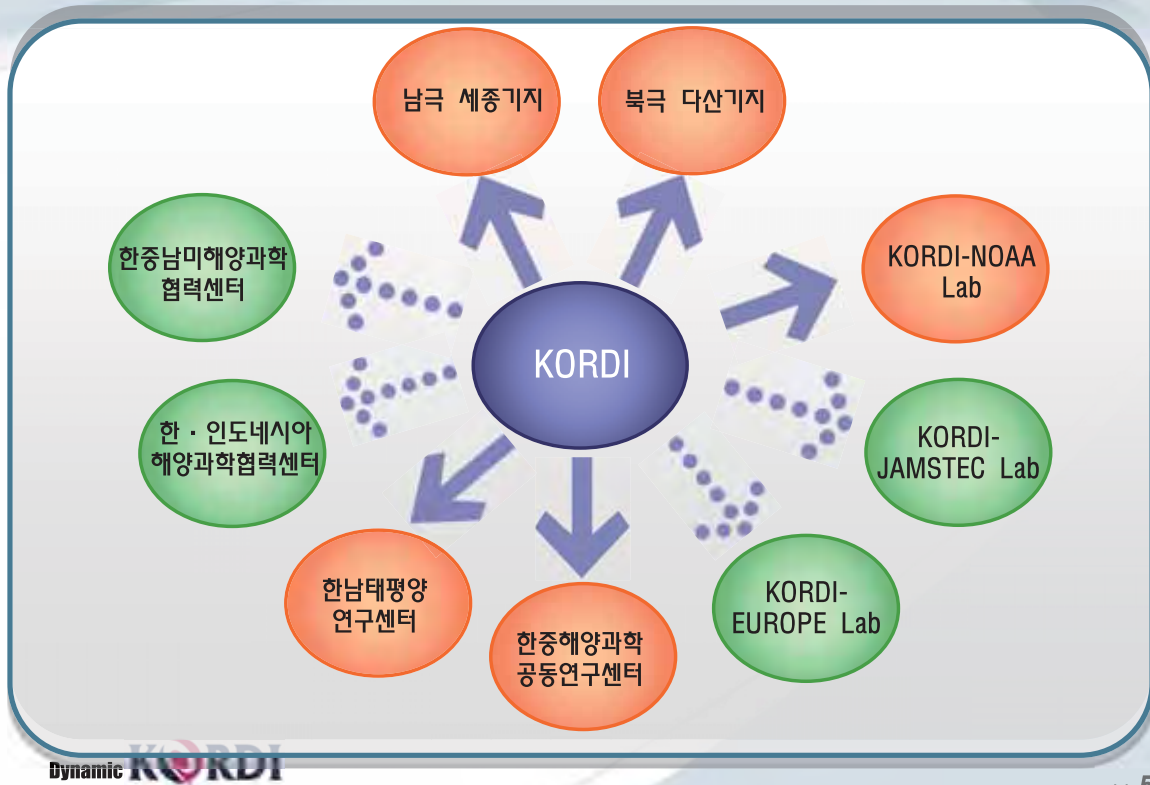
경제, 교통 및 물자교류의 장

전 세계 교역량의 75%(우리나라의 경우 99.7%) 약 50억 톤의 화물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짐

Dynamic **KOR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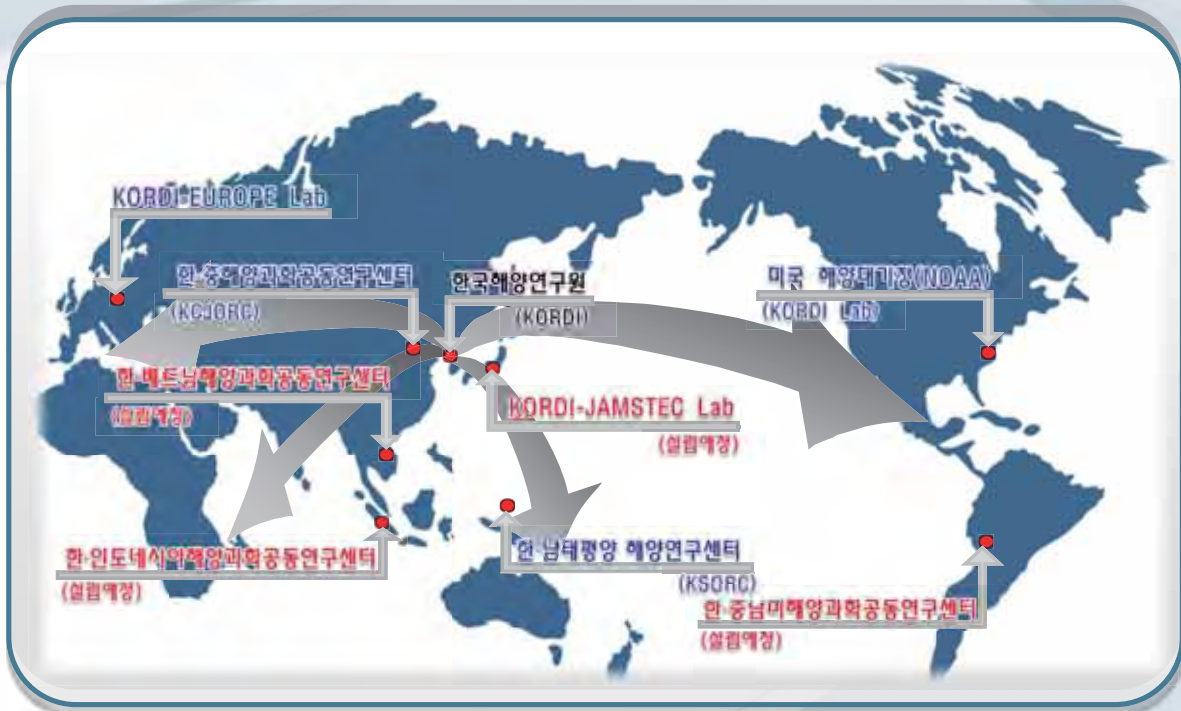
.. 4 ..

한국해양연구원의 Global Network 구축현황



..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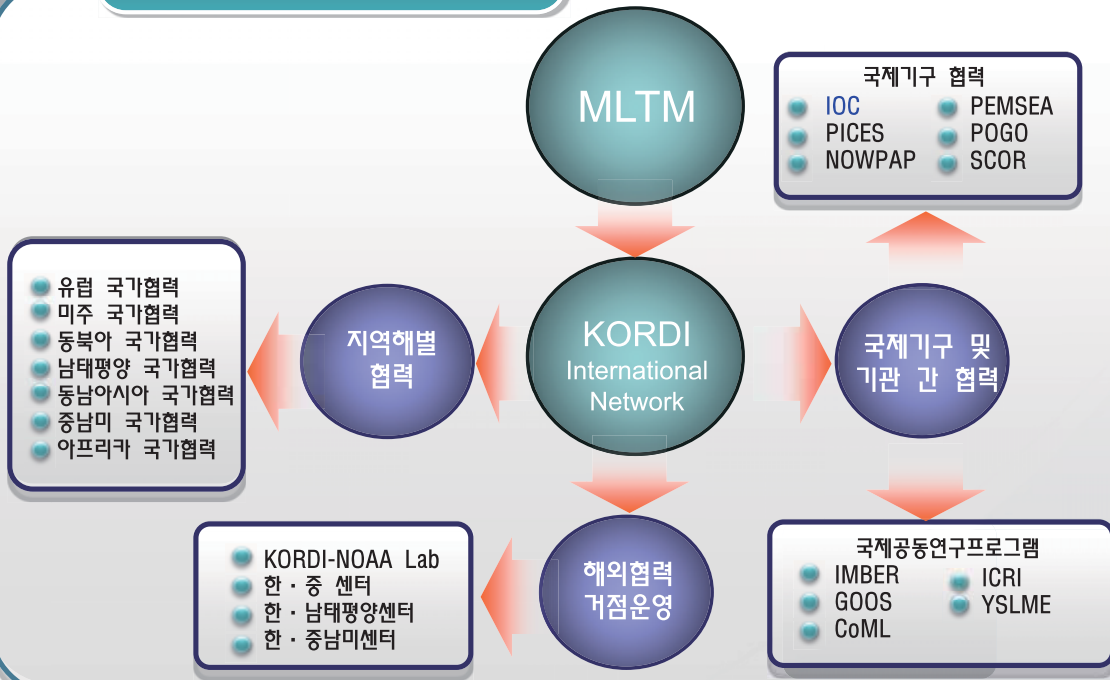
한국해양연구원의 Global Network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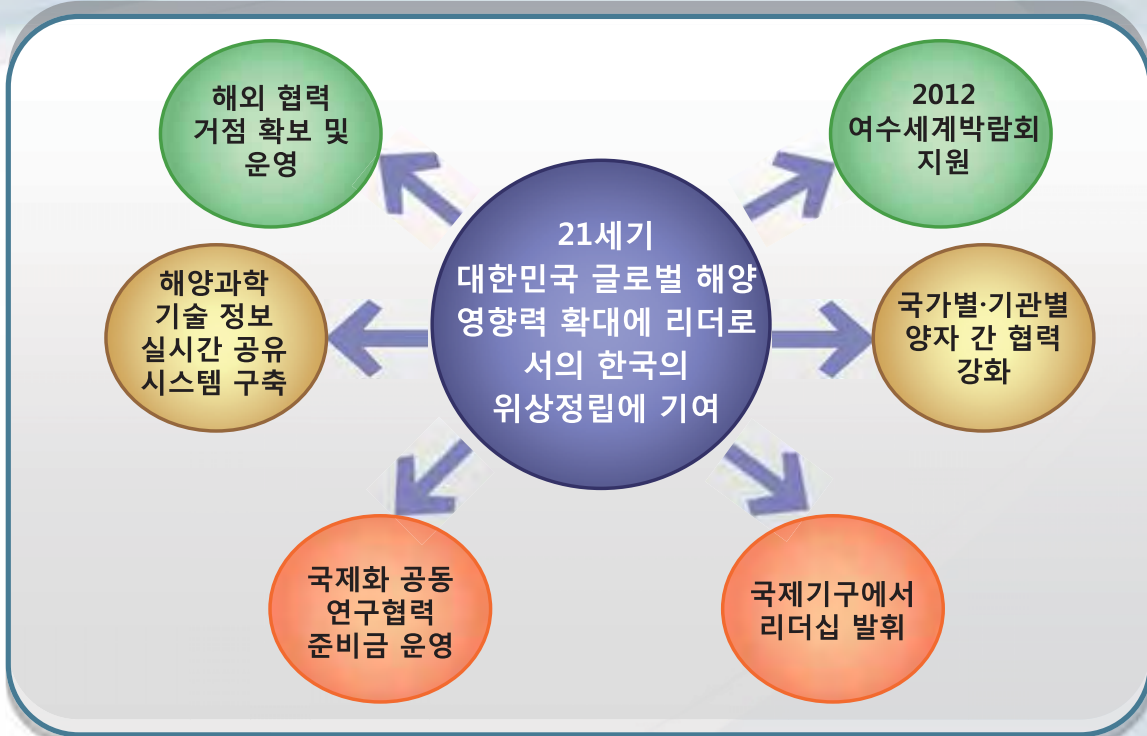
.. 6 ..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운영 전략



국제협력 네트워크



해양과학국제협력 전략



해의협력거점 확보 및 운영 : 해외 센터

구분	개요	
한중 해양과학 공동 연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1994. 10.) ○ 중국, 청도 (1995. 5. 설치) ○ 한중 양국 공동으로 임원진 (소장1, 부소장1) 구성·운영 ○ 한중해양과학기술협력 증진 	
한남태평양 해양연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해양연구소와 축 주정부 간의 해양과학기술 협력분야 양해각서 체결 (2000. 4.) ○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Chuuk State Weno (2000. 5. 설치) ○ 남태평양 일원의 지구환경변화 연구 및 다양한 해양생태계 연구, 다양한 생태계로부터 신물질 추출연구, 해양생물산업화 등 21세기 해양개척의 전진기지로 활용 	

해양과학기술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 급변하는 해양과학기술 테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 선진해양과학기술 분야별 흐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 미래 선진연구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 발굴
 - 연 2회 해양과학기술 동향 분석집 발간
 - 해양과학기술 동향 Near Real-Time 보고서 제공

KORDI 국제화 공동연구협력 준비금 운영

- 재원 미확보에 따른 국제협력의 공백을 메워 포괄적·안정적 국제협력 수행
 - 2011년의 경우 5억 원 규모 (Roll-Over Fund 형식으로 운영)
 - KORDI 국제화 공동연구협력 준비금 사용 지침 제정
 - KORDI 국제화 공동연구협력 준비금 운영위원회 구성
 - 수요자의 지원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 후 원장 승인을 득하여 사용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성화 – UNESCO/IOC

- 다학제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 협력체계 구축
 -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 National Commission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사무국 운영



- IOC를 통한 해양과학 국제동향 파악 및 공동연구 사업 발굴 추진
 - 제44차 IOC 총회 참가 (2011. 6.)
 - IOC 의장 선출(변상경 박사)
 - 제 8차 IOC/WESTPAC 총회 참가 (2010. 5.)
 - 제 8차 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움 개최 (2011. 3. / 부산)
 - 제9차 IOC/WESTPAC 총회 개최 예정 (2012. 5 / 여수)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성화

-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활동
 - 2010 PICES 총회 참가 (2010. 10.)
 - 유신재 과학 평의회 의장 활동 지원
- 국제해양과학위원회(SCOR/ICSU) 한국위원회 (Ko-SCOR) 사무국 운영
- 전지구해양과학협의체(POGO) 활동
 - 강정극 원장 Executive Committee 위원활동 지원
 - 2011년 POGO-12 Meeting 한국 개최 (2011. 1.)
-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활동
 - Non-Country Partner로서 EAS Partnership Council 참석
 - EAS Congress 2012 개최지원 (2012년 7월/창원)





신탁기금 지원현황(1-1)

IOC Funds In Trust

- 사업명 : 2012년 대한민국 여수 엑스포와 연계한 연안재해 예측과 데이터 포털 시스템의 지역별 역량강화 (2008-)
- 지원액 : 약 1억원/년 (재원:해양과학기술협력기반구축 사업)
- 목적
 - 해안재난 예보(coastal hazard forecasting)를 위한 해양과학기술 향상 및 전세계 기준 개발
 - 폭풍해일 모델링 기술의 지역 적용(해안재난 다발 지역의 개발도상국 능력 향상 및 기술이전)
 - 한국에서 시작된 전문가 그룹(Storm Surge experts) 활동 지원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로 폭풍해일 예측 및 연안재해 관리 기술을 통한 여수 엑스포 주최국으로서의 한국 위상 강화 해안재난 예보(coastal hazard forecasting)를 위한 해양과학기술 향상 및 전세계 기준 개발
- 기대효과
 - 한국의 해양분야 지원의 차별화 (기여금을 통한 일반지원보다는 우리나라의 지원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초점분야의 선정 및 지원)를 통한 예산효과의 극대화
 - IT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해양자료 관리 시스템의 기술이전

신탁기금 지원현황(1-2)

IOC/WESTPAC Funds In Trust

- 사업명 : 2012년 대한민국 여수 엑스포와 연계한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별 역량강화 사업(2008-)
- 지원액 : 약 5천만원/년 (재원:해양과학국제협력기반구축 사업)
- 목적
 - 비토착 해양종 문제 및 미생물의 특정 그룹 내의 분류학상 동일한 것과 관련된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고, 서태평양 지역 및 타 지역 과학자들 간의 연구 협력 증진
 - 비토착 해양종의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진
- 기대효과
 - 지역 내 비토착 해양종 및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진
 - WESTPAC 회원국 및 타 국가 간의 상호작용 및 협력 증진

신탁기금 지원현황(1-3)

IOC Funds In Trust

- 사업명 : 제4차 JCOMM(WMO/IOC 해양학 및 해양기상 합동기술위원회)총회 개최 지원
- 지원액 : 4억원 (지원 : 기상청)
- 지원 내용
 - 여수 EXPO 개최와 관련하여 2012년 5월 23일부터 31일간 여수에서 개최 예정인 상기 회의 IOC 부담경비 개최지원
 - 통역 및 번역비, 관련 직원의 여행경비
- 기대효과
 - JCOMM 회원국 및 타 국가간 국제협력 증진
 - 한국의 해양 및 기상분야의 영향력 확대

신탁기금 지원현황(1-4)

IOC Funds In Trust

- 사업명 : IOC 유해적조 연구 및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설립 지원 사업(2011-2013)
- 지원액 : 약 3.5억원/2년 (재원:KOICA/역수Project)
- 목적
 - 유해적조 및 비토착 해양종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 수행 지원하고, 회원국 과학자들 간의 연구 협력 증진
 - 아프리카 지역 sub-Commission 설립 지원
- 기대효과
 - - 지역 내 유해적조 및 비토착 해양종 및 영향에 대한 인식 증진
 - 아프리카 회원국과의 공동 협력 증진

능력배양 지원사업(2-1)

IOC/WESTPAC Training Workshop on Monitoring Techniques and Emergency Response of Marine Oil Spills

- 일시 : 2009년 4월 20일~23일
- 배경 및 목적
 - 2007년 12월 7일 Hebei Spirit 유류유출 사고 후 한국 정부는 국가 OSR 체계 및 연구 기술개발 향상을 위한 투자 선언
 - 이에 생태계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및 OSR 회원국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활동 시작
 -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에 있어서 해양생태계 회복과 OSR에 대한 능력배양
- 참석자
 - 훈련생 : 22명(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일본, 태국 등 12개국)
 - 강사 : 7명(캐나다, 프랑스, 한국 등 5개국)



능력배양 지원사업(2-2)

1st IOC/WESTPAC Training Course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ODE Ocean Data Portable Nodes

- 일시 : 2009년 8월 31일~9월 4일
- 배경 및 목적
 - 현재 진행중인 국제 해양자료 및 정보 교환(IOC/IODE)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해양자료센터(NODC)를 설립하지 못한 Ocean Data Portal 관련 지식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하여, 국제적 차원에서의 능력배양 및 기술이전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IOC/WESTPAC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실시함
- 참석자
 - 훈련생 9명(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등)
 - 강사 3명(러시아 등)

능력배양 지원사업(2-3)

유엔 세계해양환경평가제도(UN Regular Process) 관련 개도국 역량배양 교육 훈련

- 목적 :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환경평가 능력 배양
- 주요 내용 : 개도국들의 해양환경평가의 능력배양을 위한 신탁기금 마련, 교육훈련 실시
- 추진 현황
 -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지원
 - KORDI-IOC 간 워크숍 개최를 위한 협약 체결 : 30,000불
 - 동남아시아 지역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KORDI-IOC 공동워크숍 개최 예정 (2010년 10월)
- 기대효과
 -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환경평가 역량 제고
 - 해양환경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여를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
 -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적 협력 강화

능력배양 지원사업(2-4)

AMETEC(APEC 해양환경훈련센터)

- 목적: APEC 자원의 해양환경 전문 훈련·교육센터의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 개도국의 능력배양과 해양환경 선진국가로서 아국의 위상 제고
- 주요 내용
 - 교육훈련 워크숍 개최: 기술훈련 중심의 해양환경보전 교육/실습 훈련
 - 년 1회 AMETEC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Meeting 개최
 - 년 1회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의 개도국 내 개최
- 추진 현황
 -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개도국의 능력 배양을 위해 1994년부터 교육훈련 워크숍 개최 및 개도국 내에서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 현재까지 28개국 264명에게 교육훈련 사업 실시

III. IOC와의 협력 강화 방안

1. KOC를 통한 한국의 위상과 역할 강화

- 국내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공동협력 체제를 유지 운영
- Future of IOC, RIO+20, GOOS 개편 등 주요 현안사안에 적극 대처
- IOC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 해양재해 대응, 해양과학 조사, 해양생태계조사 및 보호 등 해양과학 전 분야에서 아국의 역량강화노력 확충

2. 대표단 구성 및 전문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 유지

- 급변하는 해양정세와 IOC의 많은 의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구성 운영
 - KOC 산하 IOC 소 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대비 체제 구성 운영
 - 대표단 구성 시 업무 분장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설정

3. IOC 및 지역사무국에 전문가 진출 및 파견

- IOC 사무국 및 지역 위원회(WESTPAC, IOCARIBE, IOCAFRICA) 등 IOC 주요 활동거점에 아국의 전문가 파견 적극 검토 필요
 - 기 추진 중인 신탁기금 및 기타 지원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을 지원 조정 역할 수행
 - 각종 전문가 회의의 좌장 및 리더 역할 수행할 전문가 양성 필요

4. 신탁기금 지원사업의 종합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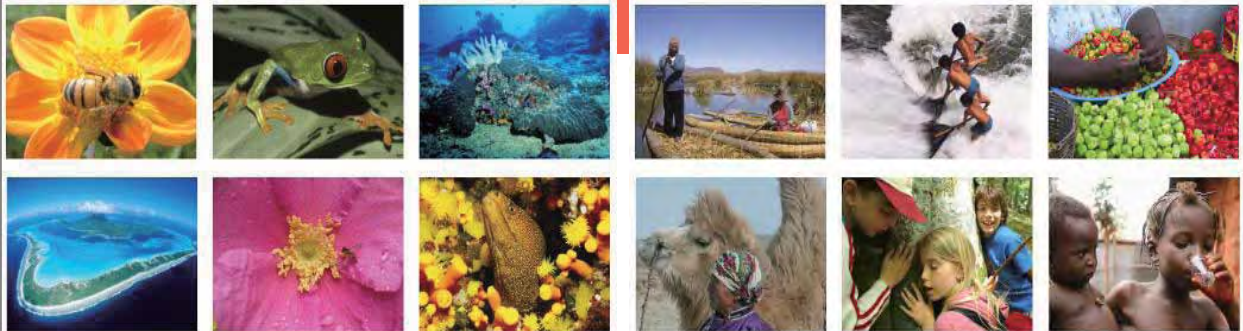
-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는 한국의 신탁기금지원을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
 - 국토부, 교과부, 기상청, KOICA, 여수EXPO 조직위 등 국내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탁기금사업을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방안으로 모색할 필요성 대두

MAB 신탁기금 현황과 협력강화 방안
MAB한국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김민선**



MAB 신탁기금 현황과 협력강화 방안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외협력실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김민선



목 차

1.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2. 세계 섬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3.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간 협력 제안



1.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 ◆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EABRN)*

- ◆ 회원국: 7개국 (한국, 북한,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 ◆ 재정: USD 50,000/1년

-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1994년부터 USD 20,000을 지원, 2000년부터 USD 35,000로 증액하였고, 2012년부터 USD 50,000으로 증액



신안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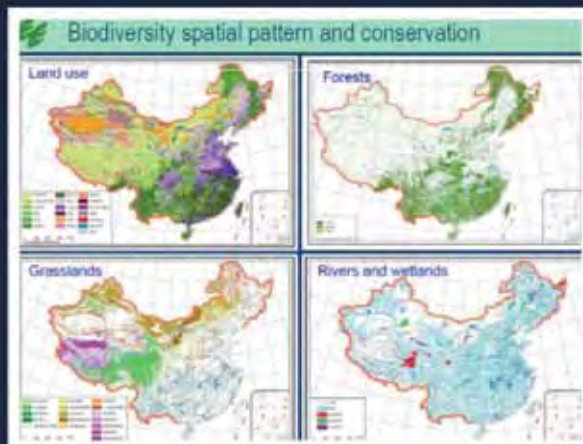
-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요 기능(보전, 발전, 지원)에 대한 정보교환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의 경험 공유
-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연계 위한 연구의 설계 및 시행 등

◆ 사무국: UNESCO 베이징사무소



<제4차 EABRN 훈련 워크숍>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원격탐사와 지리정보체계



<제12차 EABRN 회의>

- 기간 및 장소 : 2011. 9. 20~23, 신안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 주제 : 섬,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생물권보전지역 내 마드리드 행동계획의 이행



<북한 MAB 사업 지원>

- 북한 보호지역 동식물상 e-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북한의 외래식물(227종)에 대한 설명, 평가, 관리방안 제안



◆ 2012-2013 주요 사업 계획

- 제5차 EABRN 훈련 워크숍
- 제13차 EABRN 회의
- EABRN 생물권보전지역 지도첩 제작(한국, 러시아편)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동북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홍보)
- 생물권보전지역 간 비교연구사업 (기후변화) 및 교환 방문



2. 세계 섬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 제주이니셔티브 (Jeju Initiative) ('05. ~)

- 목적 : 환경 관리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도서 및 연안 생물권 보전지역의 상호 연계
- 재정: 제주도에서 매년 5만불 신탁기금 형태로 지원
- 주요활동: 한-베트남 생물권보전지역 교류사업, 국제회의 (기후변화, 생태관광 등), PacMAB 네트워크 지원



◆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09. ~)

- 제주 이니셔티브가 확장되어 제21차 MAB 국제조정이사회('09. 5., 제주)에서 창설
- 목적 :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의 공동과제를 안고 있는 섬 및 연안 지역의 협력 및 공동대응 촉진
- 운영 : 한국(제주도)과 스페인(메노르카)이 네트워크 주도
- 주요 사업 계획
 - 기후변화 (제주도) 및 지속가능발전 (메노르카)에 관한 활동에 초점
 - 섬·연안 BR의 주요 특성 및 성공적 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자료집 제작
 - 네트워크 정기회의를 통해 섬 연안 BR 관리자, 연구자 간 교류의 장 형성



3.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간 협력 제안

◆ 제안 1.

MAB, IHP, IOC 의 연구, 교류, 훈련의 장소로 생물권보전
지역을 적극 활용

<근거 : 마드리드 행동 계획 (Madrid Action Plan)>

2.1. 유네스코 정부 간 과학프로그램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을 활용한다.

18.1. 다른 정부간 과학프로그램의 연구 및 시범 장소로 생물권보전지역이
활용되도록 다른 정부간 과학프로그램과 협력한다.

18.2. IHP, IOC, IGCP, MS가 연구/정보 생산/ 정책자문에 생물권보전지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생물권보전지역 (BR : Biosphere Reserve)

-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을 대표하는 사업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 연안, 해양 생태계



핵심지역

완충지대

전이지역



◆ 제안 2.

MAB 한국위원회, IHP 한국위원회, KOC 간 지속적인 교류

- 정기적인 협력 포럼 개최
- 일반인 대상으로 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 각 한국위원회 별 정기 총회 참석을 통해 협력 사업 발굴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국가위원회 협력 포럼

퍼낸날 | 2012년 4월 27일

퍼낸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퍼낸이 | 전택수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누리집 | <http://www.unesco.or.kr>

문 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

전 화 | 02-6958-4122 팩스 | 02-6958-4252

전자우편 | heidi@unesco.or.kr

이 책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국가위원회 협력 포럼」(2012. 4. 27, 서울)의 자료집입니다.

한위간행물등록번호 SC/2012/DI/1